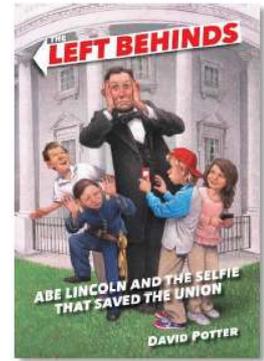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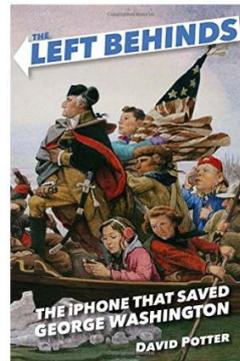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THE LEFT BEHINDS 시리즈  
가제 : ‘방치된 아이들’ 시리즈  
저자 : David Potter  
출판사: Crow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5년 1월 6일(1권) / 2016년 1월(2권)  
분량 : 352 페이지(1권)  
장르 : YA 소설



#### **바쁜 부모님들 때문에 기숙 학교에 방치된 세 아이들,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떠난 시간여행**

멜, 비벌리, 브랜든 세 명의 어린이가 미국의 역사 속 인물들을 시간 여행에서 만나 함께 영웅하게 흘러갈지도 모를 역사를 바로잡고 모험을 벌이는 신나는 이야기들을 담아낸 시리즈로, 이야기들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흥미를 자아낸다. 세 아이의 부모는 부유하지만 아이들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좋은 기숙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알아서 잘 되겠거니 생각한다. 자신들을 ‘방치된 아이들’로 생각하는 세 어린이는 데리러 오는 가족이 없어 덩그러니 남아 있던 학교에서 난데없이 시작된 모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역사도 배우며 성장해 간다.

#### **1권: THE IPHONE THAT SAVES GEORGE WASHINGTON (조지 워싱턴을 구해낸 아이폰)**

멜은 크리스마스 날, 두 친구와 함께 왓 마구간에 들어섰다가 바닥에 쓰러진 조지 워싱턴을 발견한다. 미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확실했다! 당황한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갈 뻔해보니, 심장에 총알 구멍이 나 있다. ‘프레데릭스빌’이라는 유명한 기숙학교에 함께 다니는 세 아이. 워낙 바쁘고 무심한 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크리스마스도 함께 보낼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셋 다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어쩌다가 낯선 마구간에 오게 되었을까?

원래 학교 선생님은 휴가를 즐기지 못하게 된 아이들을 어떤 행사장으로 데려갈 계획이었다. 조지 워싱턴이 델라웨어 강을 건넌 역사적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축제였다.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학교를 나서기 전, 세 아이는 낯선 남자가 학교의 창고 건물 지하실에서 슬쩍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호기심에 그가 나온 곳으로 슬쩍 내려가본다. 지하실에는 컴퓨터가 한 대 있었고, 브랜든은 아무 버튼이나 눌러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이 혼자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며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마치 세 대의 아이폰이 서로 대화를 나누듯, 신호를 교환하듯 시끄러운 소리가 반복되자 당황한 브랜든은 다시

컴퓨터 버튼을 마구 눌러댔고, 갑자기 방안이 빙 도는 느낌이 들던 찰나, 정신을 차려보니 세 아이들은 1776년으로 거슬러 올라와 앤 마구간에 서 있었던 것이다.

쓰러진 조지 워싱턴을 보던 아이들은 2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델라웨어 강을 건너야 할 그대대로 죽으면 미국의 독립 혁명이 실패하고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세 아이는 18세기 미국을 돌아다니며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두 아이들과 힘을 모아 영망진창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역사를 바로잡기 시작한다. 독립 전쟁에 참여한 독일 병사들, 똑똑한 벤자민 프랭클린도 만나고 자칫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들을 헤치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게 돕는 용감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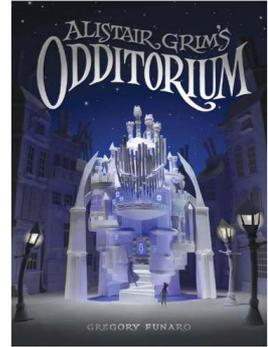
## **2권: ABE LINCOLN AND THE SELFIE THAT SAVED THE UNION (에이브라함 링컨, 그리고 유니온 정부를 구한 셀프)**

또 다시 찾아온 휴가철. 다른 아이들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으로 떠나고, 학교에는 또다시 가족들이 데리러 오지 않은 멜, 비벌리, 브랜든 세 사람만 남았다. 하지만 학교에 방치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휴대전화에 설치된 ‘아이타임’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세 아이가 다시 1863년 7월 1일 워싱턴 D.C로 시간을 거슬러 가버린 것이다. 남북전쟁의 열기가 뜨거운 곳, 그 중심에 도착한 아이들은 영부인 메리 토드 링컨 여사를 만나고, 이어 링컨의 막내 아들 테드와도 만난다. 백악관 곳곳을 구경시켜주던 테드는 아이들을 지붕까지 데려가고, 그곳에서 아이들은 마침내 에이브라함 링컨을 만난다. 한창 진행 중이던 게티스버그 전투에 온 정신을 집중한 링컨은 아이들에게 부대 행군명령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아이들은 어떻게든 게티스버그까지 가서 유니온 정부를 구해야 한다. 이번에도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아이들. 과연 그 임무를 해낼 수 있을까?

### **<저자 소개>**

데이비드 포터(David Potter)는 어려서부터 미국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이를 소재로 데뷔작으로 위의 시리즈를 완성했다.

제목 : ALISTAIR GRIM'S ODDITORIUM  
가제 : 알리스테어 그림과 오디토리엄  
저자 : Gregory Funaro  
출판사: Disney-Hyperion  
발행일: 2015년 1월 6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남의 문 앞에 버려져 조그만 굴뚝 청소부로 살던 소년, 최고의 마법사와 만나 모험을 시작하다

스미어 씨 부부의 대문 앞에 버려져 부부의 손에 키워진 열두 살 그림. 늘 따뜻하게 돌봐주시던 스미어 아줌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끔찍한 생활이 이어졌다. 스미어 씨는 어린 그림에게 쉴 새 없이 굴뚝 청소부 일을 시키고 돈은 한 푼도 주지도 않으면서 하루 종일 맥주만 마셔댔다. 모진 구박과 고단한 일만 이어지는 우울한 그림의 삶은 어느 날 알리스테어 그림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고 만다.

그 날도 스미어 씨의 명령으로 어느 여관의 굴뚝을 청소하러 갔던 그림은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무시무시한 여관 주인이 불 같이 화낼까 너무 두려워 여관 투숙객의 커다란 짐 가방 속에 몰래 숨는다. 가방 주인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관을 나서고, 마침내 가방이 열린 순간 그림은 자신이 가방에 담긴 채 '오디토리엄'이라는 신기한 세상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가방 주인은 런던 전체가 악당으로 생각하는 인물, 알리스테어 그림이었다. 신비한 푸른색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오디토리엄에는 마법에 걸린 수많은 물건들이 살고 있었다. 말하는 시계, 휴대용 사무라이 갑옷, 투덜쟁이 요정, 생기발랄한 뱀시 요정까지, 모두 처음 만난 그림을 한 가족처럼 따뜻하게 받아주고, 굴뚝이나 청소하며 아무 희망도 없이 살 줄만 알았던 그림 역시 이 신기한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 다행히 알리스테어 그림은 오디토리엄에 존재하는 마법의 비밀을 지킨다고 약속하면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제자로 일을 배울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림은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수수께끼 같은 그림과의 낯선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기도 전에 오디토리엄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알고 보니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이 세상을 다 망가뜨리려는 진짜 악당은 알리스테어 그림이 아니라 나이트셰이드 왕자였다. 사악한 주술사이기도 한 왕자는 오디토리엄에 감춰진 마법의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그림은 이제 왕자의 실체를 세상에 낱알이 밝히기로 마음 먹는다. 그리하여 그림과 그림, 오디토리엄 마법의 식구들의 위험천만한 모험이 시작된다.

**신기한 마법의 세계 오디토리엄, 사악한 악당으로부터 마법의 힘을 보호하기 위한 위대한 싸움**

그림 일행의 목표는 전설의 칼 엑스칼리버를 찾는 것. 나이트셰이드 왕자가 입고 있는 마법의 갑옷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그 칼 밖에 없다. 하늘을 나는 건 물론이고 물 속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오디토리엄 덕분에 일행은 엑스칼리버가 있다는 아발론 왕국을 향해 수중 항해를 시작한다. 바다 괴물, 먼 옛날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 알리스테어 그림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누는 마녀가 끊임없이 이들의 항해를 방해하는 가운데, 그림은 특유의 용기와 영리함, 재치를 발휘하며 그림과 함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 아발론 왕국에 도착한 일행은 고대 예언자가 그림 일행의 이 모든 모험을 다 예견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예언 속에는, 위대한 마법사 알리스테어 그림조차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운명의 열쇠가 숨어 있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늘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 많은 주인공 그림이 펼치는 위태로운 모험은 독자들을 스릴 넘치는 여정으로 이끈다. 책장 곳곳에 등장하는 흑백 일러스트레이션이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하고 상상력을 더해준다. 이 작품은 2015년 1월, 아마존에서 '이달의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 <저자 소개>

그레고리 퓨나로(Gregory Funaro)는 브라운 대학교와 뉴햄프셔 대학교를 졸업하고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연기를 공부했다. 현재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연극 교수로 재직 중이다.